

대만 타이페이

글·사진 | 하용선 | 건강칼럼니스트

일

찍어 '알라 호모자(아름다운 산)'라고 유럽인이 불렀던 대만은 지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다. 한국의 경상도 만한 크기의 땅에 약 2천2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수도권까지 합치면 약 600만 명이 거주한다.

▲ 세계 4대 박물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고궁박물관, 중국 5천 년의 찬란한 역사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중국 북경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만에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우 많다. 안내인에 의하면 대만의 오토바이가 120만대를 넘는다고 하며 주차하기도 쉽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므로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선호한다. 승용차들이 오토바이에 양보를 많이 하므로 교통사고도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대만을 두루 여행하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적지 않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대만인들의 검소함인데, 상당한 부자라도 옷차림이나 생활태도는 매우 소박하여 겉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대만에서는 금기이다. 대만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뚝뚝한 편이지만 일단 친해지면 진솔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수준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반도체 산업 역시 잘 발달되어 있다. 국토는 작지만 이처럼 발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 위주로 된 산업구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주도 아래 대기업 위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대만은 전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다. 과거 국제적인 유가 폭락이나 통화위기가 왔을 때에도 대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에선 상당한 액수의 외환을 갖고 있었고, 기업들 역시 충분한 자금



▲ 은(銀)으로 만든 관을 쓴 아이족 여성. 대만의 고산족이다.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이페이에는 볼만한 곳도 많은데 대표적인 곳이 국립고궁박물관이다. 중국 5천년의 역사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장개석 전 총통이 모택동이 이끄는 붉은 군대에 쫓길 때 귀중한 문화재를 북경에서 타이페이로 옮겨 만든 박물관이다. 국립고궁박물관 1층 보관실에 가방이나 카메라 등을 맡기고 1층 내부로 들어서면 오래된 문자인 갑골문자를 먼저 볼 수 있고, 시대별로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유적들이 사진과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층에는 고대에서부터



▲ 대만은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해산물 요리 역시 풍성하다.

청나라까지 중국의 귀중한 도자기와 서예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에는 옥과 철기로 된 문화재가 많다. 특히 코끼리 상아에 새겨진 조각품은 너무 섬세하여 확대경으로 보아야 할 정도이다.

드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중정기념관은 대만의 영웅인 장개석 전 총통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 대만의 특산인 대리석으로 꾸며진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1층에는 장개석 생존시의 사진들과 그가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 각종 훈장 및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장개석 전 총통이 생존시 근무하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방이 있다. 이곳 벽면의 정지된 시계는 장개석 전 총통이 임종했을 때 시간이다. 중앙 홀에는 장개석 동상이 우뚝 자리하며 시간마다 위병교대식이 거행되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구경한다. 중정기념관을 나서면 중국 고유의 양식으로 지어진 예술원 건물이 나타나며 휴식차 놀러온 타이페이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충렬사는 신해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애국열사를 기리는 장소이다. 입구에서 널찍한 참배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북경에 있는 태화전을 본떠서 만든 충렬사가 나타난다. 해마다 3월 29일과 9월 3일에 성대한 위령제가 열리며 매일 시간마다 개최되는 위병교대식은 볼 만하다.

타이페이의 야시장은 식도락가의 천국 같은 곳이다.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 타이페이에는 서민들이 외식을 자주 하므로 음식 종류 역시 다양하다.

많은 한국인이 들리는 곳이다. 야시장에서는 쇼핑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시끌벅적거리는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서 현지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과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야시장에 등장하는 음식재료는 신선한 어패류가 많으며 즉석에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매우 좋은 편으로 필자 일행도 이곳에서 요리 5개, 탕 2개, 과일류 1개를 시켜 먹었는데 참으로 별미였다. 그동안 중국과 홍콩 등을 여행하면서 적지 않은 중화요리를 먹었지만 대만의 야시장에서 먹은 신선한 어패류를 재료로 한 즉

석 음식이 최고였다. 어떤 음식은 입에서 솔솔 녹는 것 같았다.

야시장에 등장하는 음식도 매우 독특하다. 뱀요리라고 하여 살아있는 뱀을 손님이 보는 앞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곤 죽여서 뱀술, 뱀탕, 뱀구이 등 갖가지 요리로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들이 이것을 마다 않고 먹는다는 점이며, 일부 남성 관광객은 정력증진에 좋다고 열심히 먹는다. 살아있는 자라나 개구리, 거위 등을 재료로 한 요리 또한 흥미롭고, 즉석에서 갈아주는 열대과일의 맛도 뛰어나다. 원래 대만은 과일의 천국이란 애칭을 갖고 있는데, 구아바, 타이완 테이블, 파파야, 망고 등 갖가지 과일이 다량으로 수확되기 때문이다. 신선한 과일을 재료로 한 음식 역시 뛰어난 맛을 내는데, 과일요리는 중국요리를 먹은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디저트로 많이 쓰인다. 대만에서 먹는 전통 음식은 요리마다 독특한 풍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맛이 뛰어나다. 허끝에서 부드럽게 녹는 맛이 일품이며 소스를 곁들인 요리가 많다. 소스는 약간 양념이 가미되어 있고 달짝지근하며 기름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만에서는 하루 세 끼를 모두 밖에서 사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외식문화가 대만에서 발달한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여성의 권익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의 집에는 부엌이 아예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만 사람들이 즐기는 간편한 음식으로는 만두나 국수류, 볶은 밥, 딤섬 등이 있다.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나 켄터키 치킨집, 그리고 일식집, 한국음식점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고유 음식점들도 외식을 즐기는 대만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7

▼ 대만의 영웅인 장개석 전 총통을 기리는 중정 기념당. 해마다 구정 무렵에는 등불 축제가 광장에서 열린다.

